

백남준의 <TV 정원>처럼 인간과 자연, 기술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스티커를 이용하여 표현해보세요.

<부드러운 교란 - 백남준을 말하다> 전시 연계 프로그램

달나라 백남준



백남준은

다

여기는 백남준이 오래사는 집!!

.....
전시를 감상하며 작품을 찾아보세요
스티커를 이용하여 전시를 완성해보세요

.....
1. <TV 물고기>, 1975(1997)

24개의 모니터와 수족관으로 구성된 영상 설치 작품이에요. 수족관 물고기와 TV 속 무용수 00 000이 춤을 추고, 살아있는 물고기와 TV속 물고기는 서로 만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.

2. <TV 정원>, 1974(2002)

00, 00, 00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<TV 정원>은 마치 달나라에서 지구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TV 속에는 <000 000> 영상이 흐르고 있어요.

3. <플럭서스 챔피언 컨테스트>, 1963

백남준은 음악과 퍼포먼스에 성을 도입했어요.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00를 부르면서 소변을 가장 오래 누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플럭서스 스코어를 작곡했어요.

*사진: 만프레드 레베

4. <오페라 섹스트로니크>, 1967

00 000은 전구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첼로를 연주하다 옷을 하나씩 벗으며 마지막에는 전라로 첼로 대신 폭탄을 연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 작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?

5. <과달카날 레퀴엠>, 1977

백남준은 <과달카날 레퀴엠>을 통해 전쟁에 대한 기억과 트라우마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상처임을 말하고있어요. 백남준과 살롯 무어먼의 퍼포먼스가 진행된 곳은 제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000000이에요.

6. <매체는 매체다>, 1969

백남준은 옴니버스 형식의 방송용 비디오 작품을 만들고 <전자 오페라 NO.1>을 선보였어요. 그는 관객에게 지속적으로 텔레비전 작동법에 대해 안내하며 시청자와의 소통을 시도하였죠. 왜 백남준은 예술가들과 함께 방송용 비디오를 만들고 방송국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했을까요?

